

종합·해설

세계 도시 환경 역사 광주서 새로 쓴다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는 2011 Gwangju Summit of the Urban Environmental Accord...

국내외 100여개 도시 참가... 준비 순탄

광주시는 3일 "오는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 감대중견컨벤션센터에서 열릴 광주정상회의에 참가하는 해외도시의 숫자가 브라질 쿠리치바,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을 포함해 현재 67곳으로 70여 곳에 육박했다"며 "앞으로 추가 참가할 해외도시와 국내도시까지 합하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주최기관인 유엔환경계획(UNEP) 아킵 슈타이너 사무총장, 유엔간행정위원회

회(UN-HABITAT) 후양 크로스 사무총장,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장이면서 세계감시위원회 설립자인 세계적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 박사가 개회식 기조연설에 나서 회의 수준도 한층 격상했다. 또 UN 대학과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도시 수질 관련 심포지엄, 2011 NGO 글로벌 포럼 등 국제행사가 이어져 유엔 환경관련 단체 수장들과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 운동가들이 대거 광주에 몰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UEA정상회의의 기획단은

이번 회의에서 도시들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을 평가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마련하는 등 2가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실천과제에 합의해 '광주선언'으로 부여될 경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가 단위를 넘어 개별 도시들이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정상회의의 기획단 관계자는 "광주시의 위상과 광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행사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람회 둘러보는 해외여행사 관계자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말레이시아 여행사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여수를 방문, 박람회 홍보관 및 박람회 주요 전시 시설 및 컨텐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제공)

주말 승용차 이용 관람객 '주차전쟁'

여수박람회 교통대책 최종보고서 뜯어보니

철도 40편·항공 93편 늘려야 불편 최소화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내놓은 한국교통연구원원의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교통대책 설계용역 최종보고서 자료'는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교통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여수시가 자체 주차장 활용 방안을 마련, 승용차를 이용한 관람객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교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교통 혼잡 저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중교통 부족 대책은 이번 최종 보고서는 열악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람객은 89만6000명 수준으로, 관람객 수에 필요한 버스 소요대수는 243대, 주말 최대 1452대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서울~여수간 운행 버스(현재 25대)의 경우 주말 최대 286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승용차 3만3087대·버스 864대 및 광양컨테이너 부두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하루 9170대의 승용차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용역팀의 분석이다.

여수시가 자체 주차장 활용 방안을 마련, 승용차를 이용한 관람객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교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교통 혼잡 저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중교통 부족 대책은 이번 최종 보고서는 열악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람객은 89만6000명 수준으로, 관람객 수에 필요한 버스 소요대수는 243대, 주말 최대 1452대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서울~여수간 운행 버스(현재 25대)의 경우 주말 최대 286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운행횟수 증편에 대한 협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철도와 항공편도 비슷하다. 철

도의 경우 총 관람객(131만2000명)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주중 5편(4523편 부족) ▲주말 17편(1만6436편 부족)의 증편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항공편은 여수공항의 항공기 1대당 승객 능력(145명)과 하루 11회(김포 8회·제주 1회·포항 2회)의 운항 횟수를 감안하면 주중 2편, 주말 19~24편, 주말 최대 93편의 운항이 요구되고 있다.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여수시,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수요 파악을 통해 희망관람객일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환승유류세 등을 이용한 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철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도공사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운행횟수를 최대한 증편하는 수송대책을 마련기로 했고 항공편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편의 경우 무안국제공항 및 서해항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근 사천공항과 연계하고 항공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뒤 민간 항공사 증편 운항을 검토키로 했다. 여수권들의 단체 관람에 대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서 9·10일 모터스포츠 축제



F1그랑프리 100여일 앞으로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 100여일을 앞두고 오는 9월과 10월 영암 F1 경주장에서 다양한 모터스포츠 축제가 열린다.

3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주민·일반인들 경기장 체임 기회 제공

올해 F1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KIC(Korea International Circuit·F1 경주장 공식 이니셜)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첫날인 9일에는 자동차 동호회와 F

1경주장 체임주행과 레이싱팀 연습주행이 열리고 10일에는 경주대회 결승, F3 포뮬라 시범주행,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또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 등 일반인들도 직접 F1경주장을 누벼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10일 오전에는 경주장(5.615km)을 달려보는 'D-100일 기념 달리기 대회'가, 같은날 오후에는 F1대회를 주제로 한 유원인·초등학교 학생대회 등도 함께 열린다. 두 행사 모두 참

가비는 없으며 달리기 대회의 경우 선착순 1000명에게는 F1 기념 티셔츠가 제공된다.

박봉순 F1대회조직위원회 마케팅 부장은 "D-100일 기념 행사는 F1경주장이 가족단위 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마라톤 대회의 경우 전화(061-244-7729)로 오는 8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사생대회는 오는 6일까지 목포미술협회 홈페이지에 오송하는 www.mokpoart.co.kr를 통해 원서를 내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F1 개최권료 지원 동의안' 재상정 논란

전남도가 도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동의안을 한 달도 안 돼 재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 261회 정례회 기간 중 F1 대회 개최권료의 이차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11년 F1 대회 개최권료 지원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달 17일 끝난 제 260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된 'F1대회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 동

의안'의 일부 명칭과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 때 개최와 이차 경감, 전남도의 대의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선 동의안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도의회 내부에서는 '50여명의 도의원들이 찬·반 표결까지 거쳐 부결된 안건을 한 달도 안 돼 재차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미친물고기. 고삐 풀린 황소가 따로없군. 67개의 연속 4%대.

롯데제이티비. 상담문의 1577-6511. www.LOTTEJTB.com. 롯데제이티비 대리점 모집 062) 228-6644 OPEN* 광주 북구점 062) 384-4477.

중국. 가족여행지 북경*상품 특전. [초특급 메리어트] 북경,만리장성 + 경경원/금명원조 4/5일 419,000~. [공통구매] 북경,만리장성 + 경경원 4/5일 579,000~. [*이동방값] 북경 문화유산탐방 + 경경원 - 4대음선포함 4/5일 649,000~.

상해. *무안, 신홍소점* 초특급 힐튼&상그릴라. 상해/소주/동리+2층버스 시티투어 4일 419,000~. *가족애 상해/항주/서당 4일 429,000~. *가족애 상해/황산/삼청산/항주 5일 629,000~. *가족애 상해/장가계/서당 4/5일 899,000~.

동남아. *나는 특가다. 보라카이 (타이즈) 4/5일 799,000~. 보라카이 (상그릴라) 4/5일 1,279,000~.

유럽. [일찍 예약] 3대도시여행+5대도시관광 9일 1,690,000~. [일찍 예약] 4대도시여행+5대도시관광 9일 2,990,000~. [일찍 예약] 5대도시여행+5대도시관광 9일 4,990,000~.

러시아/북유럽. *러시아/북유럽 4국 13일 5,390,000~. *러시아/북유럽 4국 12일 4,990,000~. *러시아/북유럽 4국 11일 4,590,000~.

남태평양. [폭격] 호주 뉴질랜드 북섬+티우포 8일 2,090,000~. [KAL ONLY] 내가 만난 자유-호주 7일 2,340,000~. [이동방값] 괌 PIC 골드 4일/5일 999,000~.

미주. *무료로 즐기는 하와이+이웃섬 6일 1,590,000~. [롯데JTB] 노퍽 하와이 힐튼아키키 6일 1,990,000~. 미서부 / 3대캐년 일주 7/8/9일 1,790,000~. 미국 동부 / 캐나다 동부 6/7 7/9/10일 2,990,000~. 시애틀 & 캐나다 로키 코치투어 6/7 7/9일 1,890,000~.

동남아. 여름 휴가는 쉼부로 GO GO! [가격으로의 초대*단 4호] 499,000~. [초특급 가족휴양*로망스] 699,000~. [특급] 829,000~. [가족애] 599,000~.

홍콩 마카오+베네치안. 549,000~. *꽃밭 마카오 4일 369,000~. *베르사 비엔나 4일 399,000~. *베르사 비엔나 5일 499,000~. *베르사 비엔나 6일 599,000~. *베르사 비엔나 7일 699,000~. *베르사 비엔나 8일 799,000~. *베르사 비엔나 9일 899,000~.

중국.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4일 44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5일 49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6일 54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7일 59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8일 64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9일 69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10일 74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11일 79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12일 84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13일 89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14일 949,000~. *아시아항공 전세기-100%출발확정 15일 999,000~.